

##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 롬 7:1~6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가?’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과 순결’ 즉 성화인데, 이러한 삶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6장 23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죽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누가 나를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나를 쇠사슬로 묶어서 내가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살던 내가 그 모든 쇠사슬이 풀려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로마서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며 앞으로 공부하게 될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 **인간의 법**

누구든지 사람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규범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라’ 또는 ‘하지 마라’는 말을 듣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또 한가지 사실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것은 ‘옳다’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틀린줄 알지만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하며 나누지만 거기에는 목마름 밖에는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옳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틀리지만 고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옳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며 고생을 합니까? 틀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해합니다. 한번도 마음 놓고 살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법규로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여러 규범 속에서 삽니다. 집에 가면 가훈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칙이 있습니다. 다 그런 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정관이란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틀 속에서 초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의 법이요 양심의 법입니다. 그 시대의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시대에는 괜찮았지만 이 시대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법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 법을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돌 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죄가 된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살인이 죄라고 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살인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세계에만 법이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원한 것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선(善)을 행하기 쉬운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선이 어려운 사람은 선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죄를 쉽게 짓는지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좋기는 한데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데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

그들은 머리와 옷 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평생 동안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이미 지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오로지 한 분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선자가 되지만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자유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법을 잘 알지 않느냐?” 사실 법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법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 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들에게 법이 어느 때까지 효력이 있으며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한 예를 듭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남자를 만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주 몹쓸 남자입니다. 무서운 눈을 가지고 여자를 매일 때립니다. 노예처럼, 식모처럼 여자를 부립니다. 이혼도 해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상담하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참 힘이 듭니다. 한번 의심을 하면 의심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섭게 대합니다. 그런 남편으로부터 이 여자는 도망도 못하고 이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남편에게서 놀이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어느 날, 그렇게 못살게 굴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여자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 남편으로부터 그 여자는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확한 개념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정확한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도 이렇듯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남편이 죽는 순간부터 남편에게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음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음부가 되지 않습니다. 3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유케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율법에 얽매어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이 악하다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고 의로우며 순결하고 거룩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문제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 서면 왜 우리는 좌절합니까?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이 잘못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 **율법의 완성자**

그런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 앞에 가면 숨을 못 쉬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가면 숨을 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율법의 요구대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죽을 뻔 했지만 그 여자가 땅에 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는 자유다”하시며 놓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실수를 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지만 또 죄를 지었습니까? 본의 아니게 살인하게 되었습니까? 도적질을 하게 되었습니까? 간음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율법 앞에 서면 길이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

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왜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약탈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어찌 간음하겠습니까? 간음하든지 도적질하든지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다시 인간들이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어떤 궤변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군요.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십일조도 드리기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廢)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로 살아도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일조만 드리겠습니까? 십의 오조, 더 나아가서 나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 내 인생 전체를 가져 가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드려야 되고 십의 일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내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더 기쁨으로, 더 자발적으로, 더 의지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변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변해서 같이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어야 하고 같이 구원을 받고 같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싫은 것을 다 떼어버리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시다. 불편한 것을 다 버리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시다.

오른편 빵을 치면 왼편을 돌려 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 풍성한 삶을 누리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창 밖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내게로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환경은 어둡고 힘이 들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 있으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기쁨과 간증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 안에 있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자유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쇠사슬로부터 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돈에 종노릇 당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법에 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해방.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고 옛 질서가 아닌 새 질서, 은혜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에 종노릇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가  
생명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